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 삼 척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낚시어선업자(이하 “낚시어선업자”라 한다), 선원 및 낚시어선의 이용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어선(이하 “낚시어선”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제4조(영업구역)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12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 단,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은 연안 7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

제5조(안전운항 준수사항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승객을 안내하지 말아야 한다.
2.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3.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

동 등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5.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 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6. 낚시어선업자·선원은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한다.
2.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안전운항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금한다.
4.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바다에 유류, 분뇨,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한다.
6. 낚시어선에 승선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 전원은 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작성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8. 낚시승객은 선상에서 낚시 중 기상악화 예견 등으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9.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제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를 하고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준수사항을 교육시킨 후 출항 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고시 제2016-89호(2016.7.20.)  
는 폐지한다.